트렌드포스, 2027년 메모리 전망 하향: 중국 CSP 주문 축소와 NAND 하락 사이클

2026년 11월 25일

트렌드포스가 11월 25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메모리 산업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중국 CSP(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주문 축소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NAND는 하락 가격 사이클, DRAM은 상승폭 둔화로 방향이 갈렸습니다. 이번 글은 보도자료의 수치와, 기존에 정리한 자료들과의 관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확인된 데이터 1: 트렌드포스의 2027년 메모리 전망 하향 (2026년 11월 25일)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무료 공개본이며 상세 데이터가 담긴 리포트는 유료입니다.

- 중국 CSP들이 2027년 메모리 주문을 줄였고, 이것이 가격 전망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NAND 플래시: 2027년 산업 매출 전망을 약 4,193억 달러(전년 대비 +29%)로 하향. 공급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하락 가격 사이클에 진입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CSP들은 GPU 공급 부족 우려 속에 2026년 4분기 중순부터 2027년분 엔터프라이즈 SSD 조달 계획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그 축소분이 북미 CSP의 추가 주문을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PC·스마트폰에서는 저가 메모리 재고가 소진돼 2027년 기기 가격 상승 압력이 있고, 브랜드들은 BOM 원가 관리를 위해 탑재 용량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급 측에서는 일부 업체의 증설과 공정 전환으로 비트 출하가 크게 늘어 과잉 공급이 강화되고 계약가가 하락한다는 전망입니다.

- DRAM: 2027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고 보되, 분기별 계약가 상승폭이 점차 축소돼 하반기에는 상승이 멈출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27년 매출 전망은 1.15조 달러(전년 대비 +69%)로 하향했습니다. 중국 CSP들이 2026년 4분기 초부터 장기계약(LTA) 밖의 2027년 서버 DRAM 비트 수요를 줄였으나, 북미 CSP가 그 물량을 흡수해 전체 수요는 견조한 성장 궤도라고 했습니다.

출처: 트렌드포스 (2026-11-25) https://www.trendforce.com/presscenter/news/20261125-13321.html

■ 확인된 데이터 2: 방향이 맞닿는 기존 자료들

같은 축에서 이미 정리한 자료 세 건입니다. 새 정보가 아니라 비교 기준입니다.

- 2026년 11월 19일 트렌드포스는 2027년 NAND 가격 하락 사이클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그 전망에 매출 수치와 원인(중국 CSP 주문 축소)을 붙인 후속입니다.

출처: 트렌드포스 (2026-11-19) https://www.trendforce.com/presscenter/news/20261119-13314.html

- 2026년 11월 24일 BNP Paribas Exane이 마이크론을

Outperform에서 Neutral로 하향하며 "공급 과잉 시나리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널리스트 판단 자료이며 확정된 수요 데이터는 아닙니다.

출처: Investing.com (2026-11-24)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bnp-paribas-cuts-micron-rating-on-risks-to-2028-hyperscaler-capacity-plans-5048466 / MarketWatch (유료) https://www.marketwatch.com/story/microns-stock-falls-as-an-analyst-warns-about-a-future-supply-glut-f7fbeefb

- 2026년 11월 24일 트렌드포스는 반대 방향의 자료도 냈습니다. AI 컴퓨팅·고속 기판 수요가 전자급 유리섬유포 생산능력을 흡수해 4분기 4층 PCB 가격이 전분기 대비 10~15%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상류 소재는 타이트하다는 자료로, NAND 과잉 전망과 부문이 다릅니다.

출처: 트렌드포스 (2026-11-24) https://www.trendforce.com/presscenter/news/20261124-13318.html

■ 판단 (데이터와 구분되는 해석입니다)

1. 공급 과잉·수요 둔화 쪽 자료가 독립 출처 2건으로 늘었습니다. 11월 19일과 25일의 트렌드포스(조사기관 전망 하향), 11월 24일의 BNP Paribas Exane(애널리스트 판단)은 성격이 다른 자료이고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만 둘 다 확정된 수요 실적이 아니라 전망과 판단입니다.

2. 수요 약화의 주체가 "중국 CSP"로 특정됐다는 점이 이번 자료의 새 정보입니다. 북미 CSP는 DRAM 물량을 흡수하고 있어 지역별로 수요가 엇갈립니다. 엔터프라이즈 SSD 조달 축소의 이유로 GPU 공급 부족 우려가 지목된 점도 새로운 연결고리입니다. 중국발 축소가 일시적인지 확산되는지가 앞으로의 확인점 중 하나가 됐습니다.

3. DRAM과 NAND의 방향이 뚜렷이 갈렸습니다. DRAM은 타이트 지속(상승폭 둔화), NAND는 과잉 전환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부문을 모두 생산하므로, 이 자료를 어느 한 회사의 수요 판단으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부문별 비중과 가격 노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4. 같은 날 한국 시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코스피 -6.16%, 삼성전자 -9.87%, SK하이닉스 -11.05%, 2026년 11월 25일). 매체들은 전날 미국 AI 기술주 하락의 영향이라고 보도했고, 이 트렌드포스 자료는 장 마감 후에 나온 2027년 전망 자료입니다. 당일 가격 움직임의 원인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5. 이 글은 개별 종목의 매수·매도·보유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 전망과 그 맥락의 정리가 목적입니다.

■ 출처 일람

- 트렌드포스, 2027년 메모리 전망 하향 (2026-11-25): https://www.trendforce.com/presscenter/news/20261125-13321.ht

ml

- 트렌드포스, 2027년 NAND 전망 (2026-11-19): https://www.trendforce.com/presscenter/news/20261119-13314.html

- 트렌드포스, PCB·LED 원가 (2026-11-24): https://www.trendforce.com/presscenter/news/20261124-13318.html

- Investing.com, BNP 마이크론 하향 (2026-11-24):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bnp-paribas-cuts-micron-rating-on-risks-to-2028-hyperscaler-capacity-plans-5048466

- MarketWatch, 마이크론 공급 과잉 경고 (2026-11-24, 유료): https://www.marketwatch.com/story/microns-stock-falls-as-an-analyst-warns-about-a-future-supply-glut-f7fbeefb

- 연합뉴스, 한국 마감 (2026-11-25):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5043951008